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만사 관리의 핵심 포인트

분만사에 들어갔을 때 분만틀 모든 급이기에 사료가 남아있고, 모돈은 옆 드려서 젖을 주지않고, 말린 포유자돈들은 엉덩이가 지지분한 채 보온등 밑에 오글오글 모여있으면 한숨이 나온다. 봄철 돈가 좋은 시기에 출하될 돼지이므로 토실토실 살이 올라야 하거늘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 고민이 된다. 분만사에서 돼지를 관리하는 목적은 관리하지 않을 때보다 이유두수와 이 유체중을 늘리면서 모돈의 체중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분만사 성적을 좌우하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 영양적 요인 및 관리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지만, 관리만이 일반농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다.

### 1. 임신사에서 모돈 만들기

가. 임신사에서 중부일 기준으로 75일령에서 90일령은 유선발육시기이므로 교배후 별도의 모돈 현황판에 구체적인 날짜로서 기록하고 이 기간에는 사료급여를 2.4~2.6kg/두/일 제한한다(<그림 2> 참조). 이런 경우에도 바디컨디션이 낮은 마른 개체는 2.8kg 이상 급여한다. 전체적으로 임신사에서 사료를 제한 급여하면 분만사에서 사료섭취를 늘릴 수 있다.

\* 주의 : 등지방 두께와 바디컨디션은 사람마다 주관적이므로, 등지방측정기로 측정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모돈 사료관리 방침을 세울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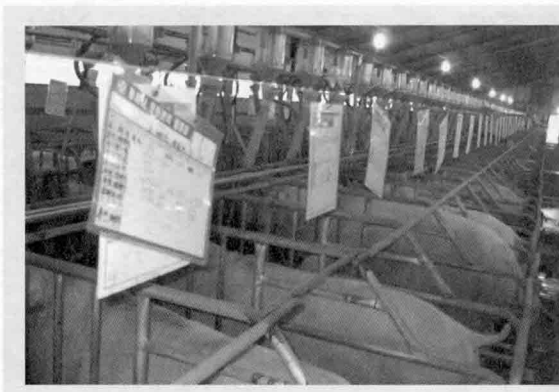
나. 임신사에서 분만사로 입식전에 모돈을 깨끗이 세척하고, 말린 뒤 분만사로 이동한다. 소독기를 사용하여 모돈을 머리 등 배 다리 및 스톨 바닥이 깨끗하도록 세척한다. 경우에 따라 물에다 네오펜사딘 소독제나 외부살



이 승 윤 수의사  
상원축산



<사진 1> 분만사 수유모돈과 군사방 이유모돈



<사진 2> 임신사서 유선발육기간 표시한 별도 현황판 부착

포용 구충제를 희석하여 사용하면 좋다.

## 2. 분만사 준비

**가.** 분만사 바닥이나 펜스 등 시설을 보수한다. 특히, 부식된 바닥은 분만틀에서 포유자돈 관절염을 일으키는 분명한 원인이다(그림 3) 참조). 또한, 떨어진 펜스나 허술한 문으로 포유자돈이 탈출하여 돌아다니면 좋을 것이 전혀 없으므로 펜스는 단단히 용접하고, 출입문도 쉽게 열리지 않도록 보수한다.

**나.** 분만사는 모돈입식전에 퐁팍지가 전혀없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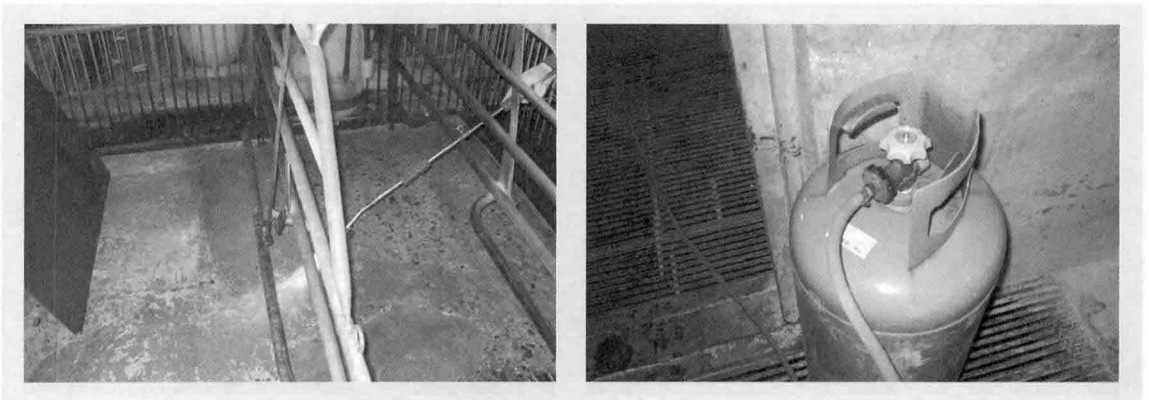
깨끗이 수세 소독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플라스배드나 삼각바 등의 틈은 포유자돈이 혀를 내밀어 핥을 수 있는 깊이까지 세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경우에 따라 생석회를 연하게 도포할 수 있고, 화염소독을 할 수도 있다(그림 4) 참조).

**다.** 분만사 모돈입식전에 모든 니플과 자돈니플을 모두 하나하나 눌러 수량이 충분치 못한 것들을 모두 풀러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새것으로 교체하여, 모든 니플에서 충분한 수량이 공급되도록 한다. 니플이 막힌 분만틀에 모돈은 사료를 먹지 않는다. 또한, 분만전후로 자돈니플이 눌러서 다대깡에 고인물을 포유자돈이 섭취하지 못하도록 한다.

## 특 집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장 구간별 점검 포인트



<사진 3> 분만을 부식된 바닥과 포유자돈 관절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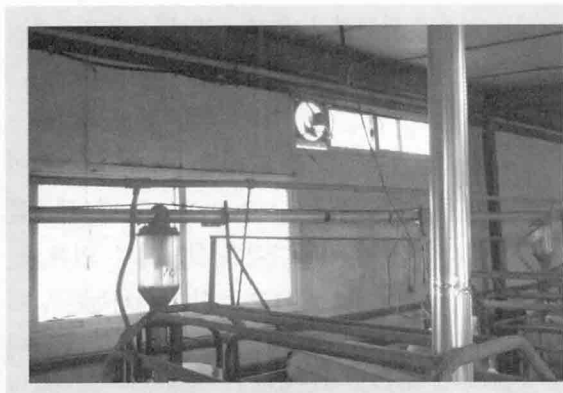


<사진 4> 화염소독

라. 분만사 온도는 경험상 모돈입식에서 분만 직전까지 18~20℃가 무난하고, 분만에서 이유까지는 22℃ 전후가 좋다. 이보다 온도가 높으면 사료를 남기는 모돈이 발생한다. 섯바람이 전혀 없도록 비닐이나 사료지대를 이용하여 틈새를 막고, 필요시 출입문쪽 펜스를 컨베이어벨트 등으로 막아 준다. 단열이 허술한 돈사라도 보온덮개와 비닐로 지붕을 포함한 틈새를 잘 막게되면 돈사온도가 오히려 보온등 만으로도 26℃까지 충분히 올라간다. 추운 겨울에 분만사는 더워서 모돈이 헐떡이면서 사료를 남긴다. 이런 경우는 소형 환(예, LGT fan)을 벽면에 설치하여 배출하면 과습과 온도상승을 제어할 수 있다(그림 5) 참조).

### 3. 조산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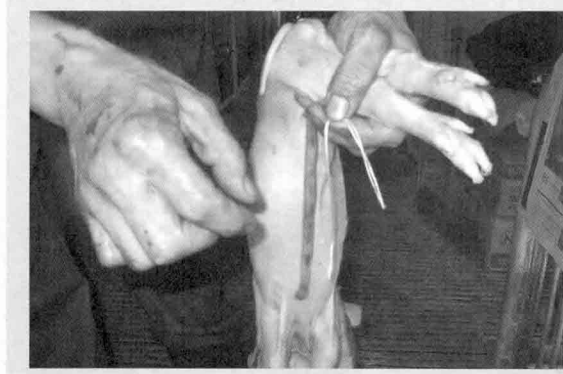
가. 분만사 보온등과 보온상자 및 바닥재를 설치한다. 신생자돈은 양수에 젖은 채로 분만되므로 저체온증이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겨울철 야간 무간호 분만은 위험하다. 따라서, 음부가 붓고 젖이 비치는 등 분만징후가 보이거나 분만예정일부터는 보온등을 켜주도록 한다. 신생자돈을 위한 바닥재로 추천할 만한 것은 1회용 골판지 매트나 보온매트이다. 골판지 매트는 1회용이라 방역상 유리하고, 보온매트는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전선이 끊기는 경우가 많지만 전기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단열효과는 좋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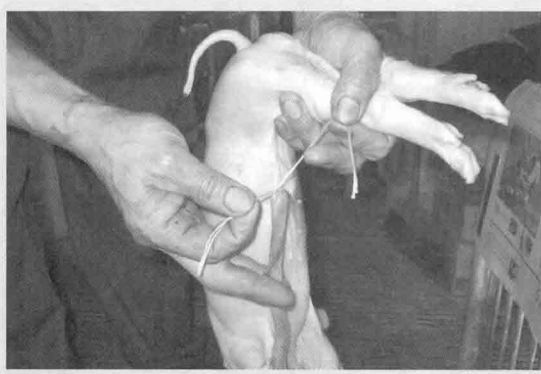
<사진 5> 분만사 측벽상단에 소형웬 설치



<사진 6> 나무보온상자 및 끝판지 보온상자



<사진 7> 탯줄뚫기



나. 신생자돈은 태어나자마자 양수를 닦고 탯줄을 묶고 단치하여 보온상자에 넣어준다. 야간 분만자돈은 다음날 마른 탯줄을 끊어주고, 단치한

다(그림 7) 참조.

다. 젖 빠는 시간을 이용해 새끼의 꼬리를 당겨

## 특 집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장 구간별 점검 포인트

가스단미기로 단미한다. 니퍼로 단미할 때 보다 조금 더 짧게 잘라도 지혈이 잘된다. 새끼손가락 손톱만큼이 적당한 것 같다.

**라.** 목요일 이유기준으로 교배는 월요일과 화요일에 집중되고, 분만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집중된다. 야간 조산관리를 위해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저녁9시까지 야근이 가능토록 배려한다. 호르몬제를 이용해 유도분만을 실시하여 주간에 조산관리를 원활히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자연분만을 하면 하루라도 더 어미 뱃속에서 머물다 나오므로 신생자돈이 크고 튼튼하다(<그림 8> 참조).

**마.** 갓 태어난 신생자돈은 잘게 찢은 신문지로 깨끗하게 닦아 보온상자에 넣어 몸을 말리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때, 수분을 조금 더 빨리 말려야 체온소실이 적고 젖 빠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수분흡착제(예, 오레아섹-동명양행)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

**바.** 분만당일에 큰새끼들 절반은 보온상자에 한 시간 동안만 가두어 뒷젖빠는 작은 새끼들이 모돈 젖(초유)을 충분히 섭취토록 한다. 조산관리가

되는 시간만 활용하고, 바쁜 시간에는 새끼를 가두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실시하지 않는다.

**사.** 앞젖빠는 새끼들과 뒷젖빠는 새끼들은 이유시 체중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체중을 줄이고자 하면 선택적 단치를 실시할 수 있다. 선택적 단치란 앞젖빠는 크고 튼실한 새끼들은 단치하고 뒷젖빠는 새끼들은 단치않고 놔둠으로서 뒷젖빠는 새끼들이 젖싸움에서 앞젖빠는 새끼들과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아.** 분만예정일이 지나도 새끼를 낳지 않는 경우는 유도분만제를 주사한다.

(예 : PGF<sub>2α</sub> 제제 2ml 외음부주사)

**자.** 난산의 경우 초산돈은 산돈에 비해 새끼가 크거나 새끼가 자세를 잘못잡은 경우가 많으므로 모돈이 폐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모돈을 일으켜 반대로 눕히고 모돈 위에서 올라가 모돈이 힘줄 때에 맞춰서 배를 눌러 분만을 돕다가 입수한다. 이렇게 해서도 분만하지 않으면 빨리 판단하여 제왕절개를 통해 모돈은 도태하고 새끼를 구할 것인지 결정한다. 노산의 경우는 힘이 떨어



<사진 8> 분만예정일보다 2일정도 빨리 유도분만한 경우: 신생자돈이 작고 털이 거의 없다.

분만사 관리자가 돼지를 돌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유성적은 좋아진다. 문제는 시설이 노후한 돈사에서는 돼지보다 시설개보수에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는 것이다. 되도록 시설보수는 기본관리 후에 하고, 일이 많은 경우는 돼지이동과 분만이 없는 요일을 선택해서 실시한다. 돼지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분만사에서도 진리이다.

어져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을 먹여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만을 돕다가 분만하지 않으면 입수한다. 입수 전 직검용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베타딘을 고루 바른 뒤에 손을 오므리고 돌려가며 서서히 집어넣는다. 새끼를 3마리 이상 분만하고 나서 분만간격이 늘어진 경우는 옥시토신을 외음부에 2ml 주사한다. 젖분비를 촉진하기 위해 옥시토신을 주사할 수도 있다.

**차.** 드물게 질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회복되지 못하고 폐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돈은 구하지 못하더라도 빨리 제왕절개를 실시하여 새끼를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그림 9) 참조.

### 카. 분만사 자돈관리 스케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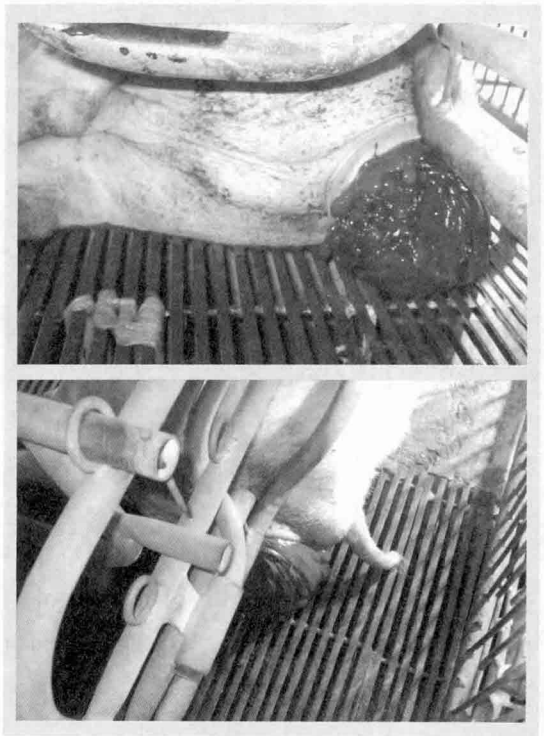
출생일	3일령	4일령	5~7일령	10일령
단미 견치 태출목록 가나비강	철분	가나비강 바이콕스	체미돈 치료	철분

• 바이콕스 : 톨루라주릴 - 곡시동제

### 타. 분만사 모돈관리 스케줄

7일전	분만일	1일후	이유전까지
철분 (5ml)	페니렙토 해열제 PGF2A	영양제	개체치료 (페니렙토)

• 페니렙토 : 페니실린 + 스트렙토마이신



<사진 9> 질탈

## 4. 분만사 일반관리

가. 포유돈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사료급여방법은 분만전 3일부터 분만직전까지 두당 하루 2.0kg 이상 주지 않는다(2회급여 회당 1.0kg). 또한, 분만 후 4일까지는 사료를 천천히 증량시키되 최고 하루 4kg 이상 주지 않는다(3회급여). 3회급여 시 아무래도 낮 급여 사료는 남기는 경향이 있으

## 특 집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장 구간별 점검 포인트

므로 낮 사료량은 조금 줄이고, 대신에 저녁사료량을 늘려 급여한다. 또한, 반드시 급이기에 잔여사료는 깨끗이 긁어내고 사료를 급여한다. 사료를 많이 남긴 개체는 한 끼 굶겨본다.

**나.** 분만들의 분변은 자주 치운다. 아침 저녁으로 치우는 것 외에 틈틈이 풍규개를 가지고 다니며 치우도록 한다. 풍규개를 통해 질병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특히 포유자돈 설사한 돈방에서 분변을 제거하였으면 소독조에 담그고 다른 풍규개를 사용한다. 또한, 설사가 많이 발생한 돈사에서 이동형 발판소독조를 끌고다니면서 분만들 출입 전후로 장화를 소독하도록 한다.

**다.** 모돈이 사료를 남겼거나, 자돈이 허약한 징후를 보이거나 설사하는 경우는 미루지 말고, 즉시 치료한다. 자돈이 설사하면 자돈들만 설사치료하지 말고 모돈도 함께 치료한다. 사료를 남긴 모돈은 한끼를 굶기고 이후 사료를 급여해서 섭취하면 서서히 증량토록 한다. 경험상 이런 개체의 사료 섭취를 복돋우기 위해 비타라이프(이지바이오)를 사료에 섞어주면 확실히 잘먹는다. 가능하면 분만사에서는 모돈계량통 조절이 힘들기 때문에 바가지 급여가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지체불량한 개체나 노산에 이유성적이 좋지 않은 개체 등은 이유전에 도태대상돈으로 결정하고, 모돈 등작과 현황판에 크게 '도태'를 표시를 하고, 투약된 약제의 휴약기간을 고려해 출하가능일을 표시한다. 도태돈으로 결정된 이후는 약제투여가 금지된다. 도태돈 결정에 앞서 분만복수 및 준비된 후보돈 두수를 고려하여 해당배치가 이유했을 때 교배 가능복수가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도태하지 말아야 한다. 양돈장 수익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두수의 비육돈을 일년내내 출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이 교배복수를 맞추는 것이다.

**마.** 질병전파 고리를 끊기 위해 양자는 부득이 할 경우만 분만 익일에 한차례만 실시한다. 포유자돈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면 이유두수는 분명히 늘어나지만 좋았던 포유자돈들은 오히려 나빠짐으로서 하향평준화가 된다. 또한, 써코바이러스 질병(PCVAD) 및 PRRS 바이러스가 양자보내는 새끼돼지를 통해 다른 복의 자돈과 모돈에 전파되고 있다.

**바.** 분만사부터 허약돈은 자돈사와 육성사를 가더라도 위축돈이 되거나 폐사하기 쉽다. 자돈사 폐사가 문제인 농장에서는 분만사에서 허약돈 강제도태를 실시해야 한다. 주간배치로 생후 2주 정도에는 허약돈은 확인해서 반드시 도태하자.

분만사 관리자가 돼지를 돌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이유성적은 좋아진다. 문제는 시설이 노후한 돈사에서는 돼지보다 시설개보수에 시간이 많이 빼앗긴다는 것이다. 돼지관리에 시간을 늘리는 것은 성적을 올려 매출액을 늘리는 적극적인 수익개선 방법이고, 시설 보수는 비용을 줄이는 소극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되도록 시설보수는 기본관리 후에 하고, 일이 많은 경우는 돼지이동과 분만이 없는 요일을 선택해서 실시한다. 돼지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은 분만사에서 도 진리이다. **양돈**

